

문화전당, 굵직한 국제행사 시원한 '문화피서'

프랑스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국립무용단 '북향' 공연
ASEM문화장관회의 기념
주세페 안달로로 리사이틀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연주
인디라간디예술센터 교류전도



프랑스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6월 한 달 동안 '한·불 상호교류의 해', '세계 환경의 날', 'ASEM(아셈)문화장관회의' 등 굵직한 행사와 기념일에 맞춰 다채로운 공연·전시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아셈 문화장관회의 개최 기념공연은 전석 무료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상젤리제 오케스트라'와 스타 피아니스트 '에릭 르 사주'는 오는 5일 오후 5시 극장 1에서 관객을 만난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9번', 리겔 '교향곡 10번',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하프너' 등이다.

2016년 프랑스아비뇽축제 공식 초청자인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도 오는 11일 오후 5시 극장 2에서 선보인다. 유럽 국가의 경제 위기 속에서 썩은 사랑과 배신을 그린 작품이다.

아시아와 유럽 53개국 문화장관들이 참여하는 '아셈 문화장관회의' 개최 기념 공연도 풍성하다.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주세페 안달로로'의 리사이틀이 대표적이다. 오는 21일 관객을 만나는 주세페 안달로로는 2011년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05년 부조니 콩쿠르, 2002년 런던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다. 레퍼토리는 슈만 '환상곡', 쇼팽 '환상 폴로네이즈',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11번'이다.

국립무용단의 '북향(北香)'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극장에서 공연된다. 전통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를 받는 이 작품은 한국 무용계의 거장 고 최현의 군자무를 모티브로 삼았다.

문화전당의 대표적인 공연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는 오는 24일 아시아 하모니를 들려준다. 지난 2009년 창단한 전통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등 아시아 11개국 전통악기를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 연주자 40여명이 연주한다.

어린이문화원에서는 ACC 장·제작 공연 '작은 악사'를 공연한다. 이 작품은 우즈베키스탄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그림책을 원전으로 하고 있다.

문화정보원과 문화창조원에서도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 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로비에서는 독일문화원 후원으로 1일부터 소리로 공간을 채우는 인터랙티브 작품 '미리아드'(Myriad)가 전시된다. 대량 생산된 2400여 개의 뮤직박스(오르골)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인디라간디국립예술센터 국제 교류전은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인도의 대문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컬렉션이 소개된다. 시인, 작가, 화가, 철학자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 타고르가 남긴 위대한 업적과 문학적 여정을 살펴볼 수 있다.

문화창조원 복합1관에서는 국제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 '김치 앤 칩스(Kimchi & Chips)'의 '라이트 배리어'(Light Barrier)를 선보인다. 대형 설치물에 부착된 오목거울 600여개가 반사하는 빛으로 연무가 분사된 허공에 3차원의 형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한국 전통 공예의 미적 우수성을 알릴 문화상품 특별전 '전통, 오늘의 일상이 되었다'도 오는 20일부터 7월 17까지 진행된다. 서구화 과정에서 사라진 전통적 가치가 어떻게 현대와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재해석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본 전시는 현대적 창의력이 가미된 의식주 관련 공예작품, 고 한창기 선생 작품 등을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전시한다. 전시·공연 정보는 문화전당 홈페이지에 있다.

문화정보원 기자 penfoot@kwangju.co.kr



피아니스트 에릭 르 사주

유소희씨 '명창 박록주전국국악대전' 대통령상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거문고 수석



유소희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거문고 수석단원 유소희(사진)씨가 제16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지난 28~29일 경북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경연은 일반부(대학생 포함)와 고등부로 나뉘어 판소리, 관악, 현악, 무용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전남대를 국악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제11회 동아국악콩쿠르 거문고부 부문 금상, 제 2회 악성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명인부 대상, 제 32회 전국국악대전 문화부장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로 활동중이다.

명창 박록주 전국 국악대전은 구미가 배출한 판소리 동편제의 거목 명창 박록주(1905~1979)선생 예술적인 업적을 기리고 미래 국악계를 이끌어 갈 젊은 국악인들을 발탁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매년 구미시와 (사)박록주기념사업회가 열고 있는 행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체부 '저작권'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1일 딱딱한 저작권법을 쉽게 풀이한 책자 '저작권' (권리자편)을 펴냈다.

모두 60쪽인 이 책에는 '저작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도움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저작권법의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설명됐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들이 실렸다.

문체부는 총 3000 권을 발간해 전국 대학의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와 저작권 단체 등에 배포하는 한편 하반기에 '저작권' (이용자편)을 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진현의 문화카데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m에 이르는 대형 스크린이 관람객을 맞았다. 꼭 영화관의 스크린을 마주하고 서있는 느낌이였다. 8개의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진 벽면에는 목탄 애니메이션의 행렬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펼쳐졌다. 지난 29일 선보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영상전시 '다육 달콤하게, 춤을' (More Sweetly Play the Dance-윌리엄 켄트리지 작)이다.

하지만 내용은 제목처럼 달콤(?)하진 않았다. 죽음의 신이 인간들을 무덤으로 이끄는 '죽음의 무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빼앗긴 장례행렬이자 전쟁과 폭정으로

리지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역시 전시 못지 않은 깊은 울림을 안겨줬다. 16세기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동명 오페라를 작곡의 고향인 20세기 남아공의 요하네스 버그를 배경으로 각색한 작품은 그림, 영화, 연극, 오페라 등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켄트리지의 진가를 확인시켜 주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후반부를 바탕으로 '죽음을 앞둔 율리시스가 귀향, 행운, 사랑, 시간 등을 회상하는 줄거리다. 클래식 오페라의 전형적인 화려한 의상과 무대세트 대신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관객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

'아워 마스터', 통하였느냐!

(Our master)

부터 벗어나려는 피난행렬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그린 작품이다. 브라스 밴드의 연주와 독특한 목탄 영상에 몰입하다 보니 어느 순간 행렬 속 주인공이 된 듯했다.

남아공 출신의 켄트리지는 '다육 달콤하게~'를 통해 안정된 삶에서 미지의 미래로 떠나는 현대인들의 사회적 고독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분명한 스크린의 인물들은 15세기 프레스코화에

나를 법한 예복을 입었지만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친근했다. 그 순간 1년 전 제주도의 본태박물관에서 관람한 '피안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꽃상여와 꼭두의 미학'전이 오버랩됐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도 슬픔 대신 꽃상여로 아름다움을 담은 우리의 전통 장례와 브라스 밴드의 흥겨운 음악과

행렬 인파의 춤으로 죽음을 애도한 '다육 달콤하게~'는 어디지 모르게 닮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예술극장의 '아워 마스터'(Our master) 출품작인 켄트

다. 작가가 디자인한 목탄화 애니메이션 영상과 세계적인 인형극 단체 '핸드 스프링 퍼펫 컴퍼니'의 정교한 목각인형, 그리고 바로크 음악 그룹 리체르카레 콘소토의 연주는 1시간 40분 동안 관객 500여 명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아시아 동시대 예술의 허브'를 내건 문화전당 예술극장이 '율리시즈~'를 끝으로 15/16시즌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 개관작 '차이밍 램'을 시작으로 9개월 동안 예술극장의 무대에 오른 작품은 21편. 시즌 초기 실험적이고 난해한 콘셉트

(concept)로 우려를 자아냈지만 '브런치 콘서트'와 시민아카데미 등 대중과의 소통을 내건 프로그램으로 서서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율리시즈~'에서 보여준 관객들의 환호는 지역사회에 목격된 화두를 던진다. 문화전당의 미래는 대중성과 예술성의 접

점에 있는 것을. <편집부특강·문화선임기자>

문화재청, '문화재 야행 10선' 펴내

순천문화읍성 달빛야행 등

10곳에서 진행된다.

문화재청이 야간에 전국 각지의 역사·문화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책자 '문화재 야행 10선'을 펴냈다.

야행프로그램은 순천시 '순천문화읍성 달빛야행'을 비롯해 전주 '전주야행, 천년빛담', 군산 '군산야행! 여름밤 군산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등 전국

책자에는 프로그램별 일정·장소와 전체 프로그램의 지역별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도 수록됐다. 안내 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됐다.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정갈한 전월동 그리고 뛰어난 맛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